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5년 10월 23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김병국, 차장 김태섭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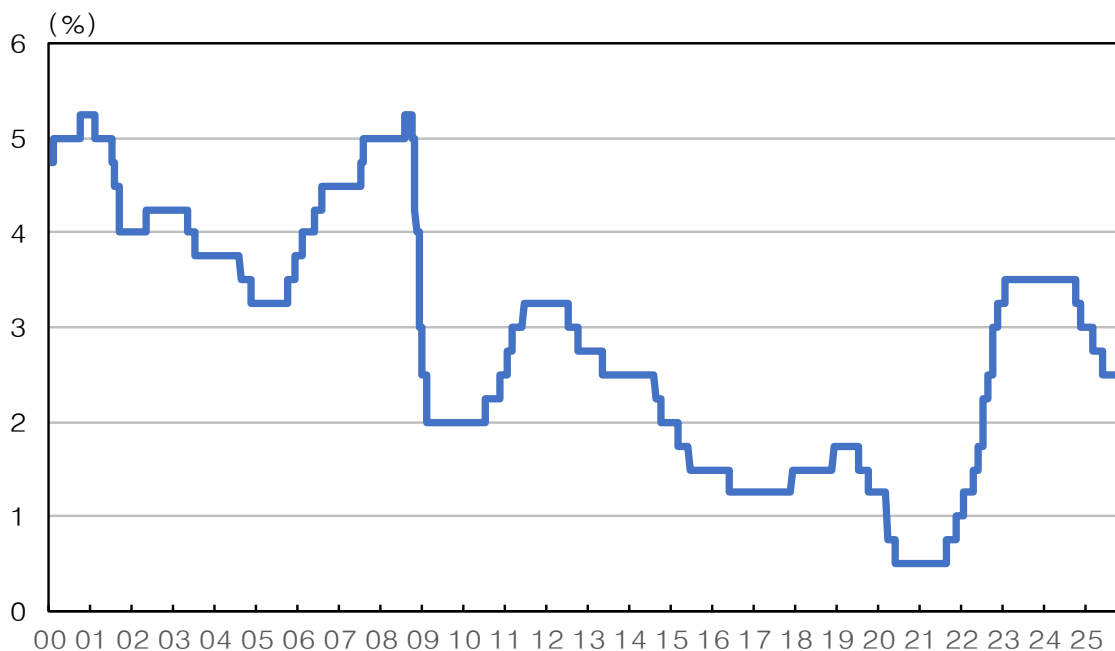
(붙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¹⁾ 추이



주: 1) 2008년 2월까지의 콜금리 목표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세계경제지표

		2023	2024	24.4/4	25.1/4	2/4	3/4	25.7월	8월	9월
미국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2.9	2.8	1.9	-0.6	3.8	..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3.4	3.0	1.8	0.4	0.7	..	0.6	0.6	..
	산업 생산 ¹⁾ (전기비, %)	0.2	-0.3	-0.3	1.0	0.4	..	-0.4	0.1	..
	ISM제조업 ²⁾ (기준=50)	47.1	48.2	48.2	50.1	48.7	48.6	48.0	48.7	49.1
	실업률 ¹⁾ (%)	3.6	4.0	4.1	4.1	4.2	..	4.2	4.3	..
	비농기취업자수증감 ¹⁾ (전기비, 만명)	334.8	209.1	50.9	52.1	28.0	..	7.9	2.2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1	2.9	2.7	2.7	2.4	..	2.7	2.9	..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8	3.4	3.3	3.1	2.8	..	3.1	3.1	..
유로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0.4	0.9	1.7	2.3	0.5	..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1.8	1.2	0.6	0.2	0.7	..	-0.4	0.1	..
	산업 생산 ¹⁾ (전기비, %)	-1.7	-3.0	0.1	2.1	-0.2	..	0.5	-1.2	..
	제조업PMI ²⁾ (기준=50)	45.0	45.9	45.4	47.6	49.3	50.1	49.8	50.7	49.8
	실업률 ¹⁾ (%)	6.6	6.4	6.3	6.3	6.3	..	6.2	6.3	..
	수출 ¹⁾³⁾ (전기비, %)	-0.8	0.5	0.4	7.7	-5.9	..	0.1	-0.8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5.4	2.4	2.2	2.3	2.0	2.1	2.0	2.0	2.2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9	2.8	2.7	2.6	2.4	2.3	2.3	2.3	2.4
일본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1.2	0.1	2.1	0.3	2.2	..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5.7	2.3	0.2	1.5	-0.1	..	-1.6	-1.1	..
	산업 생산 ¹⁾ (전기비, %)	-1.4	-3.0	0.4	-0.3	0.4	..	-1.2	-1.5	..
	제조업PMI ²⁾ (기준=50)	49.0	49.2	49.3	48.7	49.4	49.0	48.9	49.7	48.5
	수출 ¹⁾ (전기비, %)	2.8	6.0	0.2	3.5	-3.5	0.4	-0.1	-0.1	2.4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3.2	2.7	2.9	3.8	3.4	..	3.1	2.7	..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5	1.9	1.6	1.5	1.6	..	1.6	1.6	..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5.4	5.0	5.4	5.4	5.2	4.8	-	-	-
	소매 판매(전년동기비, %)	7.2	3.5	3.8	4.6	5.4	3.3	3.7	3.4	3.0
	산업 생산(전년동기비, %)	4.6	5.8	5.6	6.5	6.2	5.8	5.7	5.2	6.5
	제조업PMI ²⁾ (기준=50)	49.7	49.7	50.2	49.9	49.4	49.5	49.3	49.4	49.8
	수출(전년동기비, %)	-4.7	5.8	9.9	5.6	6.1	6.6	7.1	4.3	8.3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0.2	0.2	0.2	-0.1	0.0	-0.2	0.0	-0.4	-0.3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3.0	-2.2	-2.6	-2.3	-3.2	-2.9	-3.6	-2.9	-2.3
글로벌	교역량증가율 ⁴⁾ (전년동기비, %)	-1.6	1.7	2.9	6.6	5.3	..	5.8

주: 1) 계절조정 기준
3) 역내거래 제외

2)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4) 상품수입량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하락하였고, 미 달러화는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하였다. 주가는 AI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지표

		2024	25.6월	7월	8.27일	8월	9월	10.22일
국채금리 ¹⁾ (%)	미국(2년물)	4.24	3.72	3.96	3.61	3.62	3.61	3.44
	미국(10년물)	4.57	4.23	4.37	4.23	4.23	4.15	3.95
	독일(10년물)	2.37	2.61	2.70	2.70	2.72	2.71	2.56
	영국(10년물)	4.57	4.49	4.57	4.74	4.72	4.70	4.42
환율 ¹⁾	달러인덱스	108.5	96.9	100.0	98.2	97.8	97.8	98.9
	신흥시장국 ²⁾	42.8	46.4	45.3	45.8	45.8	46.0	45.9
	엔/달러	157.2	144.0	150.8	147.4	147.1	147.9	152.0
	위안/달러	7.30	7.16	7.20	7.15	7.12	7.13	7.13
주가 ¹⁾³⁾	전세계	841.3	917.9	929.6	953.0	951.6	984.8	990.8
	선진국	3,707.8	4,026.4	4,076.0	4,180.8	4,177.7	4,306.7	4,322.9
	신흥시장국	1,075.5	1,222.8	1,243.2	1,269.1	1,258.4	1,346.1	1,380.1
VIX ¹⁾		17.4	16.7	16.7	14.9	15.4	16.3	18.6
CDS프리미엄 ¹⁾ (bp)	신흥시장국	172.5	156.8	154.1	146.2	145.0	147.6	150.8
	중국	66.0	50.5	41.2	43.5	44.0	38.2	44.5
	한국	37.8	26.0	21.7	20.2	19.9	24.5	24.5
유가 ¹⁾ (달러/배럴)	WTI ⁴⁾	71.7	65.1	69.3	64.2	64.0	62.4	59.3
	Brent ⁵⁾	74.1	68.0	72.7	67.4	67.6	67.9	62.1
	Dubai ⁵⁾	75.1	65.6	72.3	67.1	68.4	65.7	62.4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기간중, 억달러)		-67.9	277.9	157.2	74.6 ⁶⁾	74.6	362.3	139.0 ⁷⁾

주: 1) 기말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3) MSCI 기준
 4) 선물 기준 5) 현물 기준 6) 25.7.31~25.8.27일 기준 7) 25.10.2~25.10.15일 기준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 지속, 양호한 수출 증가세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 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 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23	2024	24.4/4	25.1/4	2/4	3/4	25.7월	8월	9월
GDP 성장률 ¹⁾	1.6	2.0	0.1	-0.2	0.7	..	-	-	-
(민간소비)	2.0	1.1	0.2	-0.1	0.5	..	-	-	-
(설비투자)	-0.2	1.7	0.8	-0.4	-2.1	..	-	-	-
(건설투자)	-0.5	-3.3	-4.1	-3.1	-1.2	..	-	-	-
소매판매액지수 ²⁾	-1.3	-2.1	-0.4	0.4	-0.9	..	2.7	-2.4	..
설비투자지수 ²⁾	-4.8	2.9	-1.8	-1.7	0.0	..	7.6	-1.1	..
건설기성액 ²⁾	7.8	-4.7	-5.1	-6.4	-3.2	..	-0.7	-6.1	..
수출(통관) ³⁾	-7.5	8.1	4.2	-2.3	2.1	6.5	5.7	1.2	12.6
- 일평균 ³⁾	(-6.8)	(8.1)	(2.7)	(2.3)	(2.1)	(2.0)	(5.7)	(5.7)	(-6.2)
제조업생산지수 ²⁾	-2.6	4.2	2.1	0.1	-0.2	..	0.1	2.6	..
서비스업생산지수 ²⁾	3.4	1.1	0.7	0.3	0.7	..	0.2	-0.7	..
소비자심리지수 ⁴⁾	97.4	100.0	96.9	93.3	101.4	110.8	110.8	111.4	110.1
기업심리지수 ⁴⁾⁵⁾	90.5	92.8	90.3	90.3	94.1	92.9	91.9	93.3	93.4
취업자수 증감 ³⁾⁴⁾	32.7	15.9	5.2	15.5	20.7	21.6	17.1	16.6	31.2
고용률(계절조정계열)	62.6	62.7	62.5	63.0	62.9	62.9	62.8	62.8	63.1
실업률(계절조정계열)	2.7	2.8	3.0	2.8	2.7	2.5	2.5	2.6	2.5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실적 CBSI 기준

[물 가]

- 국내 물가는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2.0%를 각각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9월 중 2.5%로 전월(2.6%)보다 소폭 낮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환율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0% 및 1.9%)과 근원물가 상승률(각각 1.9%) 모두 8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물가지표

(전년동기비, %)

	2023	2024	24.4/4	25.1/4	2/4	3/4	25.7월	8월	9월
소비자물가 ¹⁾	3.6	2.3	1.6	2.1	2.1	2.0	2.1	1.7	2.1
	-	-	(0.2)	(1.2)	(0.2)	(0.3)	(0.2)	(-0.1)	(0.5)
▪ 농축수산물	3.1	5.9	1.6	1.2	1.1	2.9	2.1	4.8	1.9
▪ 공업제품	2.6	1.5	0.6	2.0	1.6	1.8	1.6	1.7	2.2
(석유류)	-11.1	-1.1	-5.2	5.4	-1.3	0.0	-1.0	-1.2	2.3
(석유류 제외)	4.8	1.9	1.4	1.5	1.9	2.1	2.0	2.1	2.2
▪ 전기·수도·가스	20.2	3.5	3.0	3.1	3.1	1.1	2.7	0.3	0.3
▪ 서비스	3.3	2.2	2.1	2.2	2.4	1.9	2.3	1.3	2.2
(공공서비스)	1.3	1.7	0.9	1.0	1.3	-0.3	1.4	-3.6	1.2
(개인서비스)	4.8	3.0	2.9	3.1	3.3	3.0	3.1	3.1	2.9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3.4	2.2	1.8	1.9	2.0	1.7	2.0	1.3	2.0
▪ 농산물·석유류 제외	4.0	2.1	1.8	2.0	2.4	2.2	2.3	1.9	2.4
기대인플레이션율 ²⁾	3.5	3.0	2.8	2.7	2.6	2.5	2.5	2.6	2.5

주: 1) ()내는 전기비

2)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금융안정]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안정세가 이어지다가 9월 하순 이후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이 대미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국고채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금융안정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높아졌다. 주가는 반도체 업황 호조,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국내금융지표

	2024	25.6월	7월	8.27일	8월	9월	10.22일
국고채금리 ¹⁾²⁾ (3년물, %)	2.60	2.45	2.46	2.40	2.43	2.58	2.57
국고채금리 ¹⁾²⁾ (10년물, %)	2.86	2.81	2.79	2.83	2.82	2.95	2.87
통안증권금리 ¹⁾²⁾ (91일물, %)	2.96	2.44	2.36	2.35	2.36	2.37	2.34
CP금리 ¹⁾²⁾ (91일물, %)	3.58	2.73	2.73	2.73	2.73	2.73	2.73
회사채금리 ¹⁾³⁾ (3년, AA-, %)	3.28	2.96	2.95	2.89	2.91	3.02	3.00
(3년, BBB-, %)	9.05	8.78	8.78	8.73	8.75	8.87	8.85
KOSPI ¹⁾	2,399.5	3,071.7	3,245.4	3,187.2	3,186.0	3,424.6	3,883.7
원/달러 환율 ¹⁾	1,472.5	1,350.0	1,387.0	1,396.3	1,390.1	1,402.9	1,429.8
원/100엔 환율 ¹⁾	948.8	938.1	932.4	945.0	945.5	946.6	941.9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2.3	1.8	6.3	-1.0 ⁴⁾	-1.5	7.0	4.9 ⁵⁾

주: 1) 기말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 민간신용평가기관 4사 평균 기준
4) 25.8.1~25.8.27일 기준 5) 25.10.1~25.10.22일 기준

-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으나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다시 확대되었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지표

	2023	2024	24.4/4	25.1/4	2/4	3/4	25.7월	8월	9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77.4	67.4	-1.1	9.2	18.7	17.1	3.4	8.4	5.3
▪ 대기업	31.9	26.7	-1.2	5.7	8.4	5.7	0.5	3.8	1.3
▪ 중소기업	45.5	40.6	0.1	3.5	10.3	11.4	2.9	4.5	4.0
은행 가계대출 증감 ¹⁾ (조원)	36.9	46.0	5.3	4.4	16.1	8.8	2.7	4.1	2.0
▪ 주택담보대출 ¹⁾	51.6	52.1	5.8	7.6	12.9	9.7	3.4	3.8	2.5
▪ 기타대출 ²⁾	-14.5	-5.9	-0.4	-3.2	3.2	-0.8	-0.6	0.3	-0.5
주택 매매가격 ³⁾ (%)	-3.6	0.1	0.0	-0.1	0.1	0.3	0.1	0.1	0.1
▪ 수도권 ³⁾⁴⁾	-3.6	1.4	0.3	0.1	0.5	0.7	0.3	0.2	0.2
(서울) ³⁾	-2.0	3.2	0.6	0.7	1.6	1.8	0.8	0.5	0.6
▪ 지방 ³⁾⁵⁾	-3.5	-1.0	-0.3	-0.4	-0.3	-0.2	-0.1	-0.1	0.0

-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연·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전망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